

재보선 14곳 ‘미니 총선’... ‘수성 vs 탈환’ 여야 총력전

경기도 평택을·부산시 북갑 최대 격전지
중량급 정치인·정치 신인 등 출사표 주목
與 “자만 안돼”·국힘 “예상의 성과 기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늘어나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여야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 곳곳에서 중량급 있는 정치인과 청와대 출신 인사, 인지도 있는 신인 등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재보선 주목도가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30일까지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공천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위성곤(제주 서귀포)·전재수(부산 북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앞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5곳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이 보선 대상 지역구였다.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과 당선 무

효형 판결에 따라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민주당은 이미 인천 연수갑(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을(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하남갑(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경기 안산갑(김남국 전 의원), 경기 평택을(김용남 전 의원), 울산 남갑(전태진 변호사)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을(유의동 전 의원)·경기 안산갑(김석훈 전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충남 아산을(김민경 작가)·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지성 전 당협위원장)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선의 ‘핫 플레이스’로 꼽힌다.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국민의힘 유의동·조국혁신당 조국·진보당 김재연·자유와 혁신회교안 후보가 출마해 5구구가 형성됐다.

부산 북갑은 민주당에선 이날 당에 ‘인재 영

입’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공천이 유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 예상된다.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울산 남갑은 보수세가 만만찮아 민주당이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는 곳이다.

재보선이 열리는 14곳 중 13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만큼 민주당은 사수를, 국민의힘은 탈환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0%대를 유지하고,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선 압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자만을 경계하고 있다.

당내에서 13석 모두를 가져오려다 밀려야 본

전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석을 뺏길 경우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공유한 뒤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정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았고, 최근 부산·울산·경남에서 여야 지지를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특히 영남에서 보수 결집 흐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경제 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재보선 판세가 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남은 기간 민주당의 실책이 이어진다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특위, 중량제 봉투 수급 점검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유동수(왼쪽부터) 위원장과 안도경 간사, 허종식 의원이 29일 인천 서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량제봉투 제작공장을 방문해 중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인철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29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



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 공공적 가치 모색

오늘 ‘지역테마파크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
전진숙 “통합특별시 공공인프라 확충 중요”



전진숙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구역 통합이 아니라 호남권이 산업·교통·정주 기반을 함께 갖춘 하나의 생활권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며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서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적 결합 못지않게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지역 테마파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설에 그치지 않아, 주민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가족 친화적 정주환경을 만들며,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조건을 형성하는 정주형 복합여가공간으로 다시 기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총 3회 연속 토론회로 기획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중요성’을 주제로 산업 중심 균형발전을 넘어 생활권·관광권·정주권을 함께 구성하는 문화·여가 인프라의 정책적 의미를 다룬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지역 테마파크의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와 지역 경쟁력을,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AI 중심도시 광주의 실감콘텐츠 기반 미래형 테마파크 전략과 패밀러랜드·우치공원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김진수 기자

국내 자원 탐사·개발 심의 대상 포함

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발의



의 탐사·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전 검증 절차의 부실문제와 함께 평가기관 및 수단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9일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왕고래 방지법’(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 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에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

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평가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